



2026년 5월 22일

# Weekly Macro, 무엇을 봐야 할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Economist 김유미 / RA 김정현

키움증권

## 금통위: 경제전망과 총재 메시지에 주목

다음 주에는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와 한국은행 경제전망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기준금리가 현행 2.50%에서 동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새 한국은행 총재가 주재하는 첫 회의인 만큼, 금리 조정보다는 대내외 경제 여건 점검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금융시장 역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금리 결정 자체보다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에 보다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통위 금리 결정과 함께 발표되는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전망도 중요한 변수다. 지난 2월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하며, 2025년 11월 전망치 대비 0.2%p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후 1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7%, 전년동기대비 3.6%를 기록하며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나타낸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성장률 전망치를 2% 중반 수준까지 추가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가 전망 역시 상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최근 물가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 중반 수준으로 높일 가능성이 있다.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의 동반 상향 조정은 자연스럽게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시장금리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부 반영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회견이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성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 다음주 주간 매크로 이벤트 (5/25~5/29)

일자	주요 경제지표 일정 및 이벤트	컨센서스	이전치(잠정치)
5/26	美 5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92.5	92.8
5/28	韓 5월 금융통화위원회	2.50%	2.50%
	美 1분기 경제성장률 (QoQ, 잠정치)	2.0%	0.5%(2.0%)
	美 4월 PCE 물가지수 (MoM)	0.5%	0.7%
	美 4월 PCE 물가지수 (YoY)	3.9%	3.5%
	美 4월 PCE 근원 물가지수 (MoM)	0.3%	0.3%
	美 4월 PCE 근원 물가지수 (YoY)	3.3%	3.2%
5/29	美 4월 개인 소득 (MoM)	0.4%	0.6%
5/29	美 4월 개인 소비지출 (MoM)	0.5%	0.9%
	美 4월 내구재 주문 (MoM)	2.5%	0.8%
	美 4월 신규주택매매 (MoM)	-	7.4%
연준위원 발언	韓 4월 산업생산 (YoY)	-	3.6%
	日 5월 도쿄 CPI (YoY)	1.6%	1.5%
연준위원 발언	獨 5월 CPI (YoY, 잠정치)	-	2.9%
	뉴욕 연은 총재(5/28)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사,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